
2024년 주요 정책계획

2024. 2.



질병관리청

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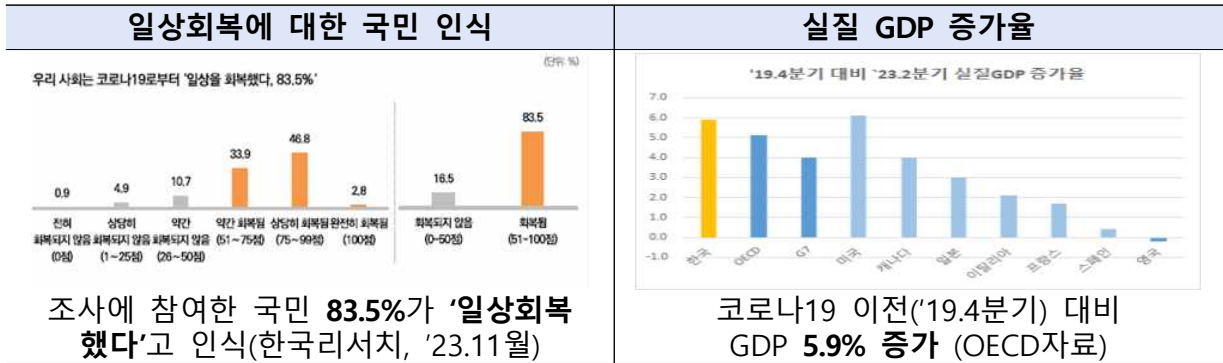
I.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3
III. 2024년 핵심과제	5
1.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·대응	5
2. 상시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	8
3.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및 건강 취약계층 보호	11
4.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 제고	14
5.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	16

I. 추진성과와 평가

1 주요 정책 성과

1] 코로나19 유행 안정적 관리 및 미래 팬데믹 대비

- **(일상회복)** 3년 4개월 만의 확진자 격리·마스크 등 방역규제 완화('23.6월) 및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('23.8월)으로 일상회복 가속화



- 코로나19 백신접종(누적 1.4억회, '23년 610만명)으로 약 15만명의 초과 사망을 예방하는 등 고위험군 집중 보호로 중증·사망 최소화
- **(미래팬데믹 대비)** 범부처 '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' 수립(5월)하여 보건 및 사회·경제 등 쏠사회적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
 - GHS 조정사무소 한국 설치('23.12월)로 팬데믹 등 글로벌 보건안보 전략 수립 및 네트워크 주도 등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

2] 감염병 유입·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

- **(감염병 관리)** 결핵, 바이러스 간염 등 주요 감염병별 종합계획 수립
 -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통한 발생현황 모니터링,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따른 대책반 구성 등 신속·적시 대응 추진
 - 취약계층 대상 결핵·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, 다제내성결핵 등 환자군별 맞춤형 예방·관리로 결핵환자 발생률 지속 감소(△3.2%)
- **(통합시스템)** 감염병 대응 적시성 확보를 위해 분절된 대응 쏠주기를 통합·연계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개통('23.12월)

3 예방접종, 의료비 지원 등 국민 질병·의료부담 완화

- (국가예방접종 확대)**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 ('23.3월~)하여 약 488억원(약 195천명 접종)의 가계부담 완화
- (건강형평성 제고)** 건강취약지역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3년 주기 격차해소사업 대상 지역 확대(5개, ^{1년}원인분석→^{2년}모델개발→^{3년}시범사업)
- (희귀질환자 지원)** 신규 희귀질환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희귀질환 지정 신속 재심의(대기기간 3→1년) 및 거주지 중심 진단 지원

구분	2022년	2023년	증감
진단 지원 건수	245건	701건	186%증가(2.9배)
진단소요기간	14.5주	7.1주	51% 단축

- (건강위해 기반)** 「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('23.12월)으로 손상 등 건강위해 예방관리 법제화의 기반 마련

4 국가 R&D 주도로 미래의료·감염병 연구 역량 강화

- (보건의료 연구데이터)**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연구자원 공개*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 촉진
* 희귀질환자 15천명분, 임상·유전체 10천명분 ('23.6월~)
- (백신 개발)** 코로나19 백신 임상3상 1건 승인 등 국산 백신 임상진입 7건 지원, 국내 기술 탄저백신 임상·품목허가 신청 완료('23.10월)

2 개선 필요사항

- 코로나19 위기 종료 후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(감사·진단·역학역량 고도화, 병상 확충, 백신·치료제 조기확보 및 개발) 마련 필요
- 세계화에 따른 인구이동 증가, 도시화 등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감염병 대비·관리로 상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필요
- 급속한 고령화 및 기후변화(이상기후, 미세먼지 등),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과 일상 속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관리체계 공고화 필요
- 글로벌 공중보건 선도를 위해 국제 보건안보 공조체계를 주도하고 국내·외 협력으로 보건의료 역량 강화 필요

II.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추진 여건

- **(대유행 간기)** 현재 코로나19 대유행(Pandemic) 후 대유행 간기(Inter-Pandemic)로 미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예방·대비 필요

< WHO의 대유행(Pandemic) - 대유행 간기(Inter-Pandemic) 개요 >

시기	간기	발생·초기	지역사회 전파	사회·국가 전파	상황 안정화	간기
활동	예방·대비	대응 (준비, 차단)	대응 (감염관리 및 유행완화)		회복 (유행 최소화)	예방·대비
기초	위험평가(지방정부, 국가, 권역국가, 전세계)					
	회복력 있는 사회 / 다분야 시스템 / 위기대응 핵심 역량					

- 인플루엔자 등 전파가 쉬운 호흡기 바이러스의 주기적 유행,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 계속으로 상시적 감시 및 대응 준비 필요
- 백신 생산 역량 세계 2위로, 병상, 백신·치료제 비축 등의 대비와 함께, 진단·mRNA 플랫폼 등 新기술 확보 중요
- **(질병부담 증가)**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대비 낮은 건강수명과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등으로 사회·경제적 질병부담* 증가
 - *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27.6만명(전체 74.3%), 진료비 83조원(전체 80.9%)
 - 팬데믹 위기상황 시 중증 및 사망율이 높은 만성질환자 보호와 개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선제적 예방·관리 중요
 - 고난도·고비용 진단, 고가의 치료제, 상시적 돌봄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에 대한 안정적 지원으로 약자보호 강화 필요
- **(기후변화 등)** 지구온난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로 기후질환·빈대와 같은 건강위해요인 및 인수공통감염병 증가가 우려되나,
 - 법·제도 등 대응체계 미비로 체계·안정적 관리에 한계
- **(글로벌 보건안보)** 해외여행·교류 증가로 감염병 유행은 지역·국가를 넘은 글로벌 보건안보의 위협 증대로 국제 공조의 필요성* 대두
 - * 국제보건규칙(IHR) 개정('24.5월 WHO 총회 채택 목표), 팬데믹 조약 제정 등

2 업무 추진 방향

2024
비전

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
일상속 위험에는 탄탄하게

정책목표

보건안보 강국, 건강사회 실현을 위한

하루 100만명
감염병 환자 대응
전략 마련

대유행 100·200일
내 백신·치료제
신속개발 기반 구축

100세 시대
생애주기별
건강한 일상 보호

핵심과제

1. 새로운
감염병 유행에
대한 선제적
대비·대응

- ① 촘촘한 감시, 정밀한 위기에측
- ② 신속한 진단, 고도화된 역학조사
- ③ 빅데이터 기반 방역, 탄력적 의료대응
- ④ **新팬데믹** 대비체계 마련

2. 상시 감염병
위험요인
관리 및 퇴치

- ①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운영 고도화
- ② 감염병 전파의 잠재 위험요인 관리
- ③ 검진·예방 강화로 주요 감염병 퇴치
- ④ 의료관련 감염 및 항생제 내성
관리기반 강화

3. 초고령사회
질병 대비 및
건강취약계층
보호

- ①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·관리 강화
- ②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건강조사체계
- ③ 거주지 중심 두터운 희귀질환자 지원
- ④ 손상·건강위해 예방 안전망 공고화

4. 국가
보건의료
연구역량 제고

- ① 백신·치료제 신속개발 및 지원체계 강화
- ②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만성질환 연구
- ③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확보·개방

5. 공중보건
글로벌
협력 선도

- ①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·네트워크 강화
- ② 공중보건 정책 및 기술 연계 강화

Ⅲ. 2024년 핵심과제

1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·대응

◆ 전국·대규모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 가능한 방역·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.

1 촘촘한 감시, 정밀한 위기에측

- **(위기분석)** 국내·외 모든 공중보건위험의 포괄적 위험분석체계 구축
 - **(국외감시)** 국외 발생 공중보건 사건 감시를 위한 채널 다양화*
* (기존) 미디어→ **(확대)** 글로벌 네트워크(국외파견자, 글로벌 공중보건 전문가, ODA 현지인력 등)
 - **(평가·예측)** 위기단계·상황*별 위험평가를 세분화하는 표준운영절차 마련(24.下), 인공지능 모델링 등을 통해 감염병 유행규모 예측 정교화
* (위기단계) 신속평가, 질병심층평가, (상황) 군중행사 개최, 검역감염병 확대 등
- **(검역)** 해외여행·교역 회복에 따라, 선제적·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 조기 경보 등 국내 전파 최소화 추진
 - **(조기탐지 강화)** 기존 입국자 검역(유증상자 위주)을 보완하는 공항만 오·하수 감시 확대(8개 검역소→ 전체(13개), 병원체 7→약25종)로 감시 강화
 - **(검역체계 국제화)** 기존 입국자 중심 검역에서 국제기준*에 따라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포함한 선진검역으로 개편
*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부속서(개정): 기내 위생점검(승기검역) 정비,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 등
 - **(입국자 검역 효율화)** 여권·Q-CODE(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) 기반 자동검역심사대 도입하여 검역 효율화(24.2월, 김해공항 시범운영)
- **(감시)** 감시체계 개선 및 사망 등 보완지표로 표본감시 활용도 제고
 - **(표본감시 확대)** 호흡기감염병 감시대상(10→11종, +코로나19) 및 의원급 기관 확대(196→300개)로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* 강화
* 주간단위 의원급(외래), 병원급(입원), 상급종합병원급(중증입원) 환자 감시
 - **(사망감시)** 적시성 있는 사망정보 수집으로 질병영향 분석, 특이 사망 조기발견·역학조사를 위한 사망표본감시 방안 마련(24.下~)

2 | 신속한 진단, 고도화된 역학조사

- **(진단)** 신속한 원인병원체 규명체계 구축 및 위기 시 대규모 진단역량 확보
 - **(신속검사)** 원인불명 감염병을 분석하는 이중복합 분석체계* 구축 및 원인병원체 규명 후 30일 이내 대규모 검사를 위한 검사법 보급
 - * ▲유사 증상을 나타내는 병원체를 동시검사, ▲동일 과에 속하는 변이바이러스 동시확인
 - **(현장진단)** 비전문 현장인력을 위한 현장형 검사 기술(POCT) 개발
 - **(대규모 검사)** 진단제품 사전평가제도 및 우수 감염병 검사기관 선정('24. 3→ '26. 15개)하여 위기 시 단기간 내 대규모 검사역량 확보
- **(역학조사)** 법정 감염병 외 비법정 감염병(비결핵항산균 등)으로 현장조사 범위 확대 및 자기기입식 조사서 실시간 입력으로 조사 효율화

3 | 빅데이터 기반 방역, 탄력적 의료대응

- **(빅데이터)** 감염병 정보 통합·개방으로 과학·데이터 방역 실현
 - **(통합·연계)** 감염병 대응 단계별 신고·조사된 감염병 정보를 표준화 및 연계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식 개통('24.1월)
 - **(공유·개방)**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('24.上)으로 정보 공유 활성화하고 수요에 맞춘 가명처리 데이터 제공으로 감염병 연구 지원
- **(의료대응)**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착공('24.上) 및 4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사회 의료역량 확보
 - **(중증병상)** 긴급치료병상 등 중환자 병상 확충('23. 700→ '28. 3,500개)
 - **(권역체계)** 권역 내 기관이 협업하는 권역완결형 의료대응 시스템* 구축
 - * (지역)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, (권역) 권역 내 기관 협업으로 의료공백 방지, 훈련 등
- **(법적근거)** 위기단계별 정교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전면개정 및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
- **(인력양성)** 소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('25)에 대비 각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로 범사회적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

- **(新팬데믹 대비)**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,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
 - **(기반 마련)** 「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*」 수립·시행('24.2분기)
 - * 인플루엔자는 다양한 변이, 높은 전파력, 인수공통감염 등 특성으로 가장 유력한 대유행 후보
 - 「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('23~'27)」 분기별 실행계획 점검 및 2차년도 범정부 협력 추진
 - **(군중모임)** '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' 감염병 관리 지원 및 대규모 군중 모임 감염병 효과적 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절차 정비
 - **(종합훈련)** 범부처(행안부·국방부 등) 현장대응 종합훈련(full-scale exercises) 운영체계 마련('24.下)
- **(위기소통체계 구축)** 위기 시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혼란 최소화를 위해 △인포데믹 리스트 관리('24.上), △위기소통 지침 마련('24.下) 추진
 - 방역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인식 조사 연2회('24.4·10월) 수행

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회복

-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이 동시유행하는 동절기에는 고위험군 보호체계*를 유지해 코로나19로부터 고위험군 등 국민건강 보호
 - *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의무, 고위험군 검사비 및 중증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등
- 환자 감소 등 상황 평가 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, 인플루엔자와 동일 수준으로 방역조치와 특별지원 체계 조정 추진('24.上)
 - *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관심-주의-경계-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며, 현재 '경계' 단계 유지
-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하여 일상의료체계 내 공급('24.上 목표), 백신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 추진 검토
 - * 위기단계 하향 시점 및 지원체계 조정 내용은 국내·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

2 상시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

- ◆ 예방접종 확대와 고도화로 국민부담은 줄이고, 편의는 높이겠습니다.
- ◆ 잠재적 위협의 확산 방지와 고위험군 집중관리로 상시감염병을 퇴치하겠습니다.

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확대 및 운영 고도화

- **(지원확대)** 건강보호와 질병부담 완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접종 추진
 - **(백신종류)** 폐렴구균 15가 백신(PCV15가) 시행, 6가 혼합백신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영유아 건강보호 및 접종편의성 확대
 - **(대상확대)** 도입 타당성*이 확인된 인플루엔자(만성질환자 대상) 및 폐렴구균·대상포진,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등 예방접종 대상 확대 지속 추진
 - * 「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」 연구('23.12월)
- **(인프라 정비)**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정비
 - **(법·예산)** 접종체계, 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위한 「**가칭** 예방접종관리법*」 제정 및 접근성 제고, 안전접종을 위한 **접종시행비 현실화** 추진
 - * (평시) 예방접종 기본계획·효과평가 등, (위기시) 긴급예방접종 등, (피해보상) 법정 전문위원회 격상, 절차 및 결과 안내 강화, 이의신청 명문화 등
 - **(시스템)** 모듈형 기능 추가, 클라우드 기반 전환 등 긴급·대규모 접종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* 추진
 - * ('24년) 계획 수립→ ('25~'27) 3개년 단계적 구축
 - **(백신수급)** 중장기계획('24.7월 수립)에 따른 비축백신* 확대 우선순위 도출 및 협의체(질병청-식약처) 정기·수시 운영으로 백신 수급 안정화
 - * (현재 4종) 피내용 BCG, MMR, PPSV, Tdap 백신

2

감염병 전파 확대 방지를 위한 잠재 위협요인 관리

- **(인수공통감염병)** 감염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
 - **(협력체계)** 범부처 통합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참여 부처 확대* 및 실무협의체 운영('24.5월~)
 - * 5개 부처(질병청, 농식품부, 환경부, 해수부, 식약처) → 7개 부처(+국방부, 행안부)
 - **(공동대응)** 관계부처 공동 역학조사 및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의훈련으로 감염병 공동 대응 역량 강화
 - **(선제구축)** 다빈도 발생 인플루엔자(H5N1, H5N8, H9N2)의 원스텝 RT-PCR* 개발(9월) 및 미래 유행 가능한 감염병의 검사법 개발
 - * 2단계 검사법(HA→NA아형 확인)→ 1단계(HA·NA아형 동시확인)로 개선하여 검사 소요시간 단축
- **(매개체 감염병)** 해외여행·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모기·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
 - **(방제 효율화)** 인공지능을 통한 야외 매개모기 종 분류까지의 소요 시간 단축(7일→24시간 이내) 및 방제활동 횟수 감소(20%)
 - **(토착화 방지)** 입국 시 Dengue 무료검사(13개 전체검역소) 및 지역 사회 치료연계(15개 거점보건소)로 전파 예방 및 초기관리 강화
 - **(고위험 관리)** 진드기 매개 감염병 다발생 지역('23. 88개 시·군·구 →'24. 103개 시·군·구) 및 고위험군 집중 예방·관리(관계부처·지자체 협력)

3

검진·예방 강화로 주요 감염병 퇴치

- **(결핵)** 잠복결핵감염 검진·치료대상에 고령층 포함*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검진 질 관리('24.7월 지침 마련)로 결핵 발병·해외유입 차단
 - * 검진·치료 연령 제한(65세 이하) 삭제 및 치료 고려 문구 추가(「결핵 진료지침」 개정('24.1.))
 - 고령층 등 취약환자군별 맞춤형 복약관리로 치료중단 최소화
- **(바이러스 간염)**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대부분 무증상 감염으로, 유행률이 높은 연령의 국가건강검진 도입 추진으로 퇴치 기반 마련

- **(HIV)** 감염취약군의 인지·치료율 향상*을 위해 예방물품 배포 및 고위험군·외국인 검사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검진 활성화(에이즈예방센터 등)

* 2030년까지 인지율 95%, 치료율 95%, 바이러스 억제율 95% 달성 목표

**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(2024~2028) 수립('24.3월)

- **(말라리아)** 국방부·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위험지역 확대, 능동 감시 도입, 진단소요일 단축 등 '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체계 마련

*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(2024~2028) 수립('24.4월)

4 | 의료관련 감염 및 항생제 내성 관리기반 강화

- **(의료감염관리)** 중소·요양병원,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감염관리를 위한 구체적 지침 제공 및 관리기반 확대로 의료기관 역량 향상 도모

- **(관리강화)** 의료기관 종·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발('24.2~4분기), 감염관리 활동 점검체계 시범운영* 등 의료기관 관리 강화

* 의료기관의 필수 감염관리 활동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(일부)

- **(감시확대)**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('23.7월)에 따른 감시참여 기관('23. 58→ '24. 300개소) 및 대상(요로감염→ 혈류감염·폐렴 추가) 확대

- **(확산방지)** 질병청-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CRE 감염증* 관리실태 파악 및 감소전략 구축 및 시범운영(8개소)

* 국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(CRE) 감염증 환자 수 증가('18. 644→ '22. 1,897명)

- **(항생제내성 관리)**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유도·관리 기반 강화

- **(인센티브)**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체계* 운영 평가에 따른 수가 도입(가칭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)으로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유도

* ASP(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) : 의료기관 내 항생제 적정 사용(처방)을 목표로 수행활동, 인력관리, 위원회 운영 등 일련의 수행과정을 관리하는 체계

- **(관리 내실화)** 현장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체 신설('24.1월, 반기별) 및 관리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대상 지침 마련('24.下)

3]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

◆ 100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만성질환·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**국민과 취약계층을 보호**하겠습니다.

1 |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·관리 강화

- **(관리강화)**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협력 주도
 - **(제도정비)** 만성질환 정책 방향성 조정을 위한 민·관 합동 위원회 설치, 총괄·지원사업 근거 등 법령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
 - **(협력체계 구축)** 유관부처·기관(복지부, 건보공단·심평원·개발원 등)과 만성질환 현안 논의를 위한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정책포럼 개최
- **(예방관리)** 일상 속 관리를 위한 지역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
 - **(지역사회 환자관리)** 고혈압·당뇨병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실시 및 교육·상담 대상 20代로 확대(기존 30세 이상) 추진
 -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사업 연계방안* 마련 및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확대('23. 10→ '24. 11개소)
 - * (질병청)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(교육·상담) - (복지부)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
 - **(국민참여 인식개선)** 국민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플랫폼(국가건강정보포털) 이용 활성화*로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 이해력 제고
 - * 알기 쉬운 건강정보 요약 확대(10→120종), 포털 정보조회 제고('22. 495만→ '24. 650만건)
 - 계기별 캠페인 등 예방수칙 홍보, 월별 이슈에 따른 정책·현황 안내
 - * (계기별) ①레드서클(심뇌혈관질환), ②알자내몸(알레르기질환), ③겨울철 홍보(뇌졸중), (월별) 3월(비만), 5월(천식, 고혈압), 9월(심뇌혈관질환), 10월(골다공증), 11월(당뇨병)
 - **(지역건강격차 해소)** 지자체 중심 소지역 격차사업으로 개편 및 매뉴얼 개발('24.4분기) 등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 역량 강화

2

지속가능한 생애주기 건강조사체계 운영

- **(근거생산)** 만성질환 감시·분석과 조사를 통해 근거기반 정책 수립
 - **(감시·분석)** 위험도·추세 모니터링으로 권고안 도출 등 감시·분석 결과(심근경색증·뇌졸중 발생 추세 등)가 정책에 반영되는 **환류체계 정립**
 - **(조사체계 개선)** 노인인구 증가 등 최근 사회변화를 반영한 조사 항목 확대* 및 비대면·혼합(대면+비대면) 조사를 통해 참여도 제고
 - * (국가건강영양조사) 골밀도검사, 노인 생활기능 척도, 신체활동량 측정조사, 폐기능 검사 등
- **(건강검진 개선)** 검진항목의 재평가 등 의사결정체계 개선* 및 경제성 평가방법 보완으로 국가건강검진의 근거 강화
 - * 관계기관(복지부, 질병청, 건보공단, 암센터 등) 협의체 운영으로 개선방안 마련

3

거주지 중심의 두터운 희귀질환자 지원

- **(거주지 중심 지원)** 의료 격차지역의 희귀질환 진료 접근성 제고
 - **(희귀질환 전문기관)** 진단·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의 권역 진료연계 및 등록통계의 책임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(17개소)
 - **(지역중심 진단)** 고난이도 질환의 유전진단을 지원하여 지역 내 진단역량 강화 및 의료 격차지역의 진단소요기간 단축(7주 이내)
- **(의료부담 경감)**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·다각화로 약자복지 강화
 - **(지원기준 완화)** 지원 대상자 선정 시,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 부동산 평가액 차이 보완 등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*
 - * 재산산정 지역구분 개선(3급지 → 4급지) 및 기본재산 기초공제액 상향조정
 - **(지원항목 발굴)** 일반식 섭취가 불가능한 대사성 희귀질환자에 필수적인 특수식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지원항목 신설('23. 28 → '24. 37개)
 - * 당원병(탄수화물 대사이상질환) 특수식 옥수수 전분 지원 (연간 168만원 이내/명)
 - **(대상질환 확대)** 신규 희귀질환 지정('22. 1,165개 → '23. 1,248개, +83개)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연계 및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확대*
 - * ('20) 1,038 → ('21) 1,110 → ('22) 1,147 → ('23) 1,189 → **('24) 1,272개**(24개 중증난치질환 포함)

4

손상·건강위해의 안전망 공고화로 미래 위험 예방

□ (조사·감시) 조기인지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사·감시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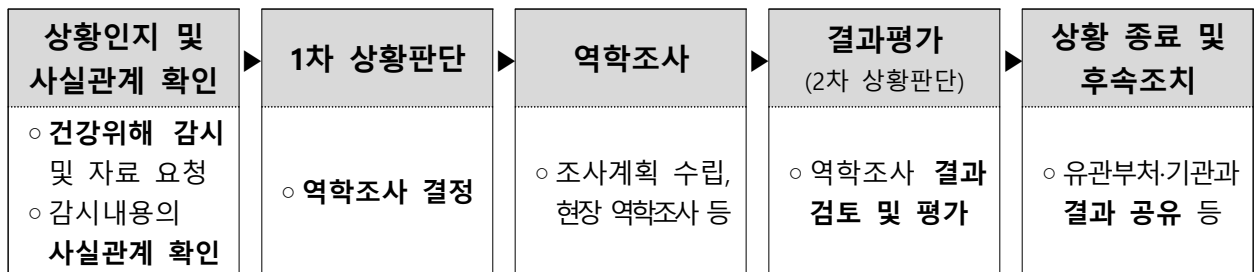
- (통합감시) 의료기관을 통한 비감염성 건강위해 감시방안 마련(24.下)
 - * 감시대상 질환 목록화, 감시정보 수집 범위·주기, 감시기관 대표성 확보방안 등
 - 감염·비감염 건강위해 사례 통합신고·대응지침 마련으로 원인불명 질병 집단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비체계 구축(24.下)*
 - * 「비감염성 건강위해 역학조사 지침」 마련 및 비감염성 역학조사 교육과정 개발
- (기후보건) 온열·한랭질환 감시(질병청)-기상예보(기상청) 자료를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경보기능 강화(24.下)

□ (인프라) 손상 및 비감염성 건강위해에 대한 법·제도 등 기반 구축

- (손상예방관리 체계화) 「손상*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(25.1월)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, 위원회 설치 및 하위법령 제정 준비
 - * (손상) 질병을 제외한 사고, 재해,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
- (건강위해 대응 제도화) 비감염성 질병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*의 체계적 대응 및 기후질환 조사·감시 등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** 마련 추진
 - * 빈대, 가습기살균제, 흡연, 유해성 금속·가스, 화학물질 등 다양한 화학적·물리적 요인
 - ** (건강위해) 「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국회 상임위 소위 계류 중 (기후보건) 「가칭기후위기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 및 예방에 관한 법률」

< 비감염성 건강위해 위기대응체계 흐름도 >

* 법 제정 추진중



- (통합시스템 구축) 부처별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통합 및 신고·감시할 수 있는 건강위해정보관리시스템 구축*하여 건강피해 조기탐지

* '24년 예산 735백만원, 점진적 시스템 고도화 예정

4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 제고

- ◆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**백신·치료제**를 신속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.
- ◆ 국내·외 연구 협력으로 **미해결 감염병, 만성질환**을 극복하겠습니다.

1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·치료제 신속개발 및 지원체계 강화

- **(백신)** 국가 백신 R&D 핵심기관으로서, 국내·외 및 민·관과 전략적 연계·협력으로 백신 선제 개발 및 국산화로 백신주권 확보
 - **(전략)**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신속한 백신 개발을 위해 우선 순위 병원체(9종*) 중심 투트랙 전략 추진(자체개발, 글로벌 공조)
 - * 코로나19, 신종인플루엔자, 니파, 라싸, 뎅기, SFTS, 치쿤구니아, 신증후군유행성출혈열(한탄), RSV
 - **(국산화)** 생물테러 등 공공안보 감염병 백신* 개발, mRNA 핵심 기술 확보** 등 국가 주도의 백신 개발로 보건안보 강화
 - * 탄저백신 공동개발(식약처 품목허가 진행중) ** 백신전달체(LNP등), 항원발현 벡터(IVT) 기술
 - **(인프라)** “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” 운영으로 인공지능 활용 백신 항원 설계, 디지털(in-silico) 비임상,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등 인프라 구축
- **(치료제)** 감염병 치료제 신속개발을 위한 기술 첨단화 및 공동연구 추진
 - **(전략)**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치료제 개발을 위한 팬데믹 대비·대응 실행전략 마련('24.上)
 - **(첨단기술)** 고효율 치료제 신속 발굴을 위해 인공지능* 등 신기술 활용 및 신속대량 효능평가 플랫폼 고도화
 - * 치료타겟 발굴, 유효물질 탐색 등 치료제 개발 연구 활용
 - **(민간지원)** 감염병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·분석 관련 고시* 제정('24.1월)으로 치료제 발굴 민간지원체계 상시 운영
 - * 「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·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」
 - **(국제공조)** 다국가 공동임상시험* 참여 및 미국(NIAID), 독일 등과 감염병 치료 후보물질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
 - * 美 NAID 주관 STRIVE 참여→ 평시감염병 임상연구 지원, 위기시임상시험 신속연계·진입

2 |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만성질환 연구

- **(문제해결 중심 R&D)** 소아·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임상문제 해결 중심의 만성질환 R&D 강화
 - **(만성질환)** 심혈관질환, 호흡기·알레르기질환, 치매 등의 원인규명 및 환자관리-진료의 근거 연구로 연구 기반의 정책 연계 강화
 - 소아·임신성 당뇨병 등 소외분야 집중연구로 사각지대 최소화
 - **(미세먼지)**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재 프로그램 개발 ('24.12월), 건강·대기정보에 유전체정보를 추가 연계하여 데이터 고도화
- **(첨단재생의료)** 고품질의 줄기세포 연구자원 제공(임상등급 역분화줄기세포 4개주 확보) 및 임상용 줄기세포치료제 제조 지원(1→2건)
 - **(안전관리)** 이상반응 중대성에 따른 보고시기 및 조사방법 이원화 절차를 마련*하여 임상연구 국가안전관리체계 운영 강화
 - * 「첨단재생바이오법」(상임위 의결, '23.12월)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예정

3 |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확보·개방

- **(바이오빅데이터 구축)** 100만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* 본격 추진(1차년, 주관복지부)
 - * '24~'28년, 77.2만명 데이터 확보(일반인 58.5만, 뇌졸중 등 25종 중증질환 14만, 희귀질환 4.7만)
 - 임상-유전체-공공데이터가 연계·통합되는 R&D 인프라* 구축
 - * 인체자원 저장관리 인프라 확충(100만명분 자동화 인체자원 제작 및 전수 검수), 데이터 बैं크 구축(개인 중심으로 통합된 데이터의 축적 및 환류)
- **(빅데이터 인프라)**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유·활성화 혁신 추진('24.5월)
 - **(데이터 공유)**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·분석 플랫폼 고도화* 및 공개 DB 확대(18→24건), 고성능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분석실 개소('24.3월)
 - * 21만명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 플랫폼 개방, 17만명 메타데이터 기반 데이터 카탈로그 제작
 - **(인체자원 개방)** 인체자원* 공유로 보건의료데이터 선순환 촉진
 - * 국민건강영양조사(5.5천명), 희귀질환, 육종암, 만성뇌혈관질환(1.5천명) 등 9천명분(누적29.7만명)

5]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

◆ 공중보건 정책과 보건의료 연구의 **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겠습니다.**

1 |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

- **(국제공조)** 글로벌 보건안보 주도 및 감염병 대응과 기후보건 등 공중보건 현안 분야에서 국제공조 확대
 - **(협력주도)** 「GHS 조정사무소」(23.12월 개소) 중심 교육·훈련 프로그램 개발* 등 역량강화, 글로벌 보건안보 전략 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**
 - * 조정사무소 내 '교육·훈련 플랫폼(센터)'를 설립, 보건취약국 대상 초청연수 및 실습 제공
 - ** 「Global Health Security 컨퍼런스」세션 기획, WHO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
 - **(ODA 확대)** 취약국 대상 기술지원 확대* 및 취약국의 병원체 등 자원활용·정보공유**를 통해 미래팬데믹 대비 공조체계 확립
 - * 질병청 전문인력 참여 확대로 진단·감시·위기대응 등 강점 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원
 - ** 해외 현지 신종감염병 병원체 자원 확보, 공동연구, 감염병 감시 정보 공유 등
- **(인력교류)** 감염병 대응의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여 위기 시 국외 현장파견을 통해 글로벌 공중보건위협 대응에 참여
 - **(긴급파견)** WHO 요청 시 국내 감염병 전문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이 가능토록, WHO GOARN* 인력풀 마련 및 교육
 - * 국제 유행경보 대응네트워크(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)
: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현장파견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
 - **(장기파견)** WHO, 美CDC 등에 전문인력 파견을 통해, 전세계적 보건위기에 대한 감시·분석 및 협력 강화

- **(보건정책)** 보건정책의 국제적 공유·확산을 위해 WHO 협력센터 운영·신규지정* 및 월드헬스시티 포럼 참여 등 국제공조 강화
 - * (지속운영) 항생제내성 WHO 협력센터(몽골 항생제내성 실험실 역량강화 지원 등)
 - (신규지정) 팬데믹 대비·대응 WHO 협력센터,
 - 만성질환 조사·감시 및 빅데이터 활용 WHO 협력센터

- **(기술연계)** 국립감염병연구소 중심의 국제포럼 개최* 등 국내·외 연구기관 협력으로 국가 감염병 R&D 역량 강화
 - * 환태평양 신종감염병 국제컨퍼런스(EID),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움(IDRIC) 개최('24.3월)

- **(공동연구)** 선진국과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 및 미해결 감염병(결핵, 항생제내성 등) 치료제 개발 등 공동연구·인력교류 추진

- **(자원·정보 확보)** 베트남(NIHE)에 해외연구거점을 구축('24.下)하여 기관 간 공동연구(결핵 등) 및 인력교류로 연구의 허브역할 수행
 - * '25년 이후 아프리카 CDC 내 해외연구거점 추가 구축 추진